

디스플레이 산업

권민규 mk.kwon@sks.co.kr / 3773-8578

SK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국제무역위, BOE 수입금지 판결 관련 코멘트

- 미국 국제무역위(USITC)에서 BOE수입금지, 판매금지 예비 판결. 향후 14년 8개월간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
- BOE의 미국 내 수입금지로 미국 기업들 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비중 상승 전망
- Q증가에 따른 국내 패널 및 밸류체인 수혜 예상

▶ 배경

- 미국 국제무역위(USITC)에서 삼성디스플레이-BOE간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예비판결 업데이트
-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 판결 방향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
- 행정법 판사(ALJ)가 위법 여부 판단 이후 Remedy(구제조치) 및 Bond(보증금)에 대한 권고 결정을 포함 Recommended Determination(RD)을 작성한 것이 발표됨.
(기존 7월 11일 예비판결은 Initial Determination(ID)로, 위헌 판단 결정을 함. 이번 RD는 구제조치 및 담보를 제안해야함).
- 최종 판결은 25년 11월 17일 예정, 해당 Recommended Determination(RD)의 권고 내용은 검토 이후 최종판결에서 최종 조치를 결정함. 일부 수정되거나 RD 그대로 수용하기도 함
- 대통령 또는 USTR이 60일 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매우 희귀한 사례(대부분 통과)

▶ 판결 내용

- 언론 보도에 따르면 BOE는 14년 8개월 간 '제한적 수입금지(배제) 명령'(LEO) 판결
- 중국 BOE 본사, 미국 현지 법인 등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광고, 재고판매 등 모두 차단(CDO)
- 수입 및 미국 내 영업 활동 전반을 못하게 하는 전방위 봉쇄조치
- 대통령 검토 기간동안 100%의 보증금 부과
- Recommended Determination(RD) 문서 열람 제한에 따라 상세 내용은 언론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
다만, RD가 25년 8월 12일에 등록된 것은 분명해 보임(아래 그림 참고, 출처: USITC)

Document Id	Doc Type	Title	Received Date	
859309	ID/RD - Final on Violation	Initial Determination on Violation of Section 337 and Recommended Determination on Remedy and Bond	08/12/2025	

▶ 애널리스트 의견

- BOE 수입금지 조치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가인하(CR)우려 완화 및 경쟁강도 완화
- BOE는 애플의 패널 CR카드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패널 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음. 또한 8.6G IT OLED 32K를 준비하고 있음
- 미국 업체인 애플, DELL, HP 등 스마트폰 및 세트 업체는 BOE 패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8.6G IT OLED 시장도 경쟁강도 완화 예상
- BOE가 공급하는 OLED 패널만 제재에 해당되며(LCD는 해당되지 않음), BOE가 공급하는 OLED가 가장 많이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애플의 '아이폰'
- BOE는 통상적으로 아이폰 패널 공급량의 20~30% 공급. 주로 미국내 유통되는 아이폰 레거시 제품 및 리퍼비시 제품, 갤럭시 리퍼 패널을 공급해옴
- 미국 내 유통되는 BOE OLED 패널은 연간 2,000~3,000만대 수준으로 파악
- 해당 물량이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배정 시 Q는 상승할 수 있으나 저부가 모델 및 리퍼비시 비중이 높으므로 단가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CR 우려 완화, 경쟁강도 완화는 긍정적. 해당 조치로 국내 아이폰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수혜 예상

▶ 예상 수혜주

- LG디스플레이 및 삼성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전반적인 수혜를 예상
- 수입금지, 재고사용 금지 조치 즉각 발효 시 삼성디스플레이향 긴급 발주 가능성, 관련 밸류체인 하반기 실적 상승 가능성 보유
- BOE 배제로 아이폰 신규모델 패널 CR우려 완화, 중장기적으로 IT OLED 경쟁 강도 완화에 따른 삼성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주목
- 애플은 통상적으로 모델당 2개의 벤더를 할당.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의 경우, 기본/프로 모델 물량 배정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위주로 배정됨. BOE 수입금지 조치에 따라 아이폰 17 내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단기적인 수혜를 예상함. 다만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BOE에 배정된 물량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단기적인 물량 증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CR우려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파악.
- 패널 단가 인하 우려가 축소되면 패널 부품군의 단가 인하 압박도 축소. 물량 증가에 따른 Q증가도 예상

<패널 업체>

LG디스플레이: 패널 단가 인하(CR)우려 완화. CAPA 제한으로 물량이 큰 폭으로 확대되진 못하지만, 현재처럼 고부가 패널 위주의 믹스 개선세 지속 예상. BOE에 배정된 프로 모델 일부가 LG디스플레이로 재배정될 가능성 보유

<삼성디스플레이 밸류체인>

- **덕산네오룩스:** BOE는 중국 OLED 소재 업체들의 값싼 소재 공급으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BOE의 퇴출로 단가 인하(CR) 우려 완화. 또한 삼성디스플레이 물량 상승에 따라 Q증가 예상.
- **비에이치:** 삼성디스플레이 물량 증가에 따른 Q 증가 예상. FPCB CR우려는 이미 기반영되어 제한적이지만, 패널 단가 인하 우려 축소로 중장기적 CR우려 추가 축소 예상

- **파인애플:** 미국 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중국 스마트폰 벤더들의 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선택 확대 예상. Q증가 예상

- **캠트로닉스:** BOE Rigid OLED 패널 수입 금지 조치로 삼성디스플레이 Rigid OLED 패널 수요 증가 예상 (Rigid 패널은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모두 탑재 중). Rigid OLED 패널 수요 증가에 따라 가동률 상승 점진적 증가 예상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